

직장은 제2의 가정! 가정의 일체감에서 무재해 10배 달성

-한전산업개발(주)보령사업소-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길, 푸르다 못해 파란 하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우성치는 코스모스...

가을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취재길에 나선 나를 반기고 있다.

오늘의 취재는 한전산업개발(주)보령사업소(류명록 소장)에서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이라는 뜻깊은 일이었다 하기에 찾게 되었다.

1992년 8월 21일 개소하여 제1호기에서 6호기까지 연료를 공급하는 상하탄 설비와 석탄회처리 설비, 배연탈황 설비 운영 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이곳은 『무재해, 무사고, 무고장 사업소』 구현 아래 지난 8월 9일에 무재해 10배라는 큰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한전산업개발(주) 내에서 2번째의 쾌거이며, 국내에서 기업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기록이다.

특히, 유연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보령화력 저탄장처럼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와 Conveyor Belt에 의한 협착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무재해 10배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류명록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보여준 직원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안전정책을 강제적인 압박보다, 자율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류명록 소장은 『상투적인 안전활동보다 내면에서 나타나는 안전활동에서 사고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안전활동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중 주요 정책등을 소개한다.



류명록 소장

직장은 제2의 가정
가정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며, 안전한 곳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장에서의 생활은 가정만큼 많다. 따라서 직장을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의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정에서의 근심·걱정은 곧 직장에서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곳 보령사업소에서는 가족일체감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집중안전 포커

300여명의 가족 농장 운영을 통해, 아빠의 직장이 편안하고 포근한 곳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빠의 신뢰감을 높여주는 활동이 그 예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동호회를 통해 가정의 안전이 곧 직장의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철저한 안전확보 전개

하루 한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설비에서의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 기기 교체 운전시 조작 전·중·후, 촉감, 미감, 후감, 청감, 시감(오감)을 통해 설비를 점검하는 365무재해 운동 카드 제도가 있으며, 부서별 1인을 일일 안전소장으로 선정하여 매 Shift별 취약지구 및 취약 시간대 순찰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안전의 정착에 힘쓰는 일일 안전소장제가 있다.

또한, 매일 가상고장 모의 훈련 시행 및 반기별 경



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유형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화설비, 소화기 등 방화시설 비치는 물론이고, 저탄장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자연발화의 위험 제로화를 위해 살수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 등은 이 곳에서의 안전확보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역사회의 안정 추구

사내에서의 가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 같은 취지에서 지역사회 안정 또한 사업장의 안전임을 강조하는 보령사업소는 발전소 주변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 및 인근 관광지 정화 활동을 통해 인근 지역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내 축구회, 볼링회, 등산회, 낚시회 등의 각종 동호회 활성화와 인근 지역내 동호회와 친목을 위한 친선 경기 등은 한전산업개발(주)보령사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

하다.

이 밖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보령화력 본부와 공동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제를 운영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대 근무조는 현장 투입 전에 현장 설비점검시 유의사항 및 계절별 설비 관리 사항과 작업전 유의사항 및 작업 내용, 질차, 안전수칙 등에 대해 전달하고 안전구호 제창을 통해 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안전협회와 보건협회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은 무재해 10배를 달성하였지만, 향후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영원한 무재해사업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15배 달성시 다시 찾을 것을 다짐하며 취재를 마친다. 

〈최종덕 기자〉

